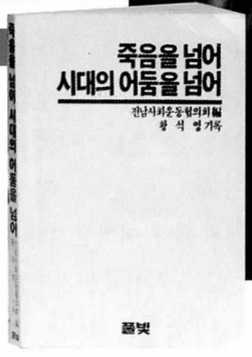
성악도를 민중가수로 변신케 한 역사의 진실

민중가수 최도은씨가 뽑은 황석영 외의《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역사 앞에 섰던 '그들' 이 꿈꾼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읊을 수 있다면, 노래를 버리지 말자, 싸울 힘을 북돋자고 다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또 두고 온 가족들이 눈에 밟혀도, 이땅의 참된 민주화를 위해 투쟁의 깃발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나비〉로 잘 알려진 민중가수 최도은씨(36)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다. 그는 어렵고 힘든 노동자의 삶을 힘찬 목소리로 되살리고 있다.

숙명여대 성악과 84학번인 그는 '5월 광주' 를 1984년 5월에 처음 알았다. 그가 서가에서 뽑은 손때묻은 책《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전남사회운동협의회 엮음, 황석영 기록, 풀빛)도 그때 읽었다.

"이 책은 당시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의 사연과 명단, 그들이 부른 노래와 구호 등 당시 활동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제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현장' 에 충실하다. 시민들의 역량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되짚어, 1980년 5월 14일부터 하루씩 꼽으며 광주 민중항쟁을 설명한다. 그리고 확대 비상계엄 선포, '화려한 휴가' , 시민군의 등장, 해방기간 등으로 항쟁과정 전반을 알려준다.

최도은씨는 역사와 노동자의 삶에 천착하며 15년 동안 운동의 한복판을 통과해왔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고 부르며 노래에 담긴 역사를 절감한다. 그리고 선배들이 남긴 운동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읽으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한다.

"역사 앞에 섰던 '그들' 이 꿈꾼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읊을 수 있다면, 노래를 버리지 말자, 싸울 힘을 북돋자고 다짐합니다."

그가 노래하는 곳은 대부분 고용위기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거나,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장소다. 분명 소프라노 프리마돈나를 꿈꿨던 성악도가 설자리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자리를 선택했고, "평등 ·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덜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삶이 그대로 와 박힌 노래" 를 부른다. 인터뷰 시간이 길지도 않았는데, 그 동안 잡힌 일정이 다섯 개나 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부천 산곡성당에서 1년을 버티고 자진출두를 앞둔 대우자동차노조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는 또 한밤 먼길을 달려 그들을 만나러 간다. 그들과 어깨를 겯고 노래로 곁을 지키기 위해서다. —차정신 기자